더불어민주당 | 보도자료 |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347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전화:02)6788-3628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제22대 국회의원들 참여해 법 개정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여러 시민단체들, 국회의원들과 함께 6월 11일(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남인순, 최민희, 이수진, 안태준, 박지혜, 김용만, 김준혁, 이재강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적인 반전·평화와 전시성폭력 근절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지난 30여 년 간 피해생존자들과 여성·시민들은 수요시위와 소녀상을 국경을 뛰어넘는 평화운동의 장이자 역사 정의를 바로세우는 상징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수요시위와 소녀상이 역사 왜곡 세력들에 의해 심각한 모욕과 훼손을 당하고 있다.

극우 역사부정세력에 의해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수요시위 방해 행위는 전국 곳곳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제, 집회 등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소녀상에 대한 테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을 진행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소녀상 테러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은 과거의 슬픈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달라”며 “수요시위와 소녀상에서 피해자를 욕하고 일본군‘위안부’가 거짓말이라며 부르짖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제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통과시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지키겠다.” 강조했고, 이어 남인순, 김용만 의원도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역사정의를 수호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관련 법 개정과 비롯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정의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해 함께할 것이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사당 앞 계단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국내 기림비-평화비 테러 대응 공동행동(가칭)(강릉여성의전화, 김복동의희망, 당진어울림여성회,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부산여성행동,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회, 수원평화나비, 의정부평화비건립추진위원회, 이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북겨레하나, 평화나비 네트워크. 해남나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서영교, 윤호중, 남인순, 이재정, 최민희, 이수진, 안태준, 권향엽,

박지혜, 김용만, 김준혁, 이재강, 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김준형, 강경숙, 김선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프로그램]

사회: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피해자 발언: 이용수 할머니
- 국회의원 발언
- 소녀상 테러 규탄 발언: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발언: 송도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혜선 (세종여성회 대표)

[기자회견문]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제정 31주년 되는 날이다. 1993년 6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지원을 위해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2002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포함되었고, 2017년에는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역사 부정·왜곡 세력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수요시위 방해는 2024년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거명하며 "거짓말쟁이"라 공격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전쟁터로 갔다"는 등의 거짓을 퍼뜨리며 혐오스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제 수요시위를 넘어 전국 곳곳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제, 집회 등을 방해하고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고 철거를 촉구하는 챌린지를 감행하고 있

다. 소녀상에 대한 테러는 세계 곳곳에서 평화비 건립을 막고 이미 건립된 평화비 철거를 위해 온갖 로비를 서슴지 않는 일본 정부의 역사 지우기와 맞닿아 있다. 3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가해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온갖 모욕과 공격 등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역사의 퇴행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의기억연대는 2022년 피해자 모욕 및 수요시위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역사부정과 왜곡 발언을 하는 이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2년째 지지부진 시간만 끌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녀상 테러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우려는 행위에도 현재 법은 무용지물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라는 거대한 전쟁범죄 가해자에 대항해 당당히 범죄를 증언하고 여성인권과 평화를 위해 싸운 분들이다. 피해자들이 함께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은 전시 성폭력에 경종을 울리며 글로벌 여성·인권 규범의 변화를 견인해 왔다. 미래세대가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피해자들의 염원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증언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아홉 분에 불과하다.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여성인권의 상징이 된 소녀상 훼손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사정의를 수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4년 6월 11일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현장 사진]

▲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진행된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남인순, 최민희, 이수진, 안태준, 박지혜, 김용만, 김준혁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강경숙 국회의원 /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남인순・ 김준혁 국회의원, 이용수 할머니,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